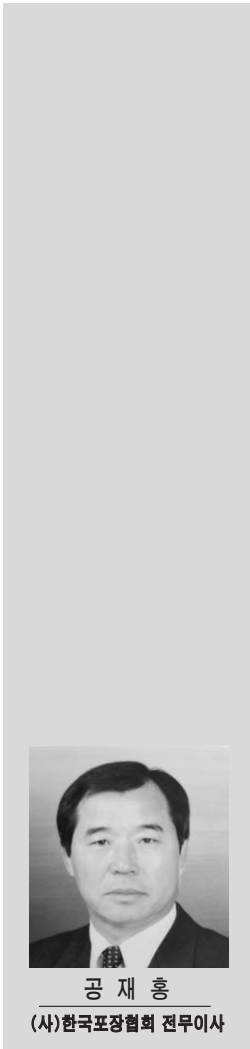


## “포장재 사용 업계, 포장재 가격 인상 적기에 적정하게 수용해야”



공재홍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포장산업이란 제품의 보호와 유통을 위해 제지, 합성수지, 금속, 유리, 목재 등의 재료로 제품을 시장(施裝)하는 행위로서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 과정을 일관하는 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포장이 없으면 상품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유통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중요한 산업이 근래 들어 국내외의 각종 요인으로 인해 사상 최악의 위기 상태로까지 직면해있다.

우선 외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지난 3~4년 동안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아 현재 배럴당 130US\$ 돌파할 예상이어서 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로선 국제 원·부자재 가격 폭등이 전반적인 국내 포장산업 위기의 가장 큰 요인이며, 특히 석유산업 부산물(합성수지)을 포장 소재로 하고 있는 연포장, 성형용기 분야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근래 들어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또한 포장재의 가장 큰 수요처인 대형 식품 관련 기업체들이 채산성 악화를 가져온다는 명분으로 포장재 가격 인상 요청을 우선순위에서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들이 국내 전 포장 산업을 위기국면으로 몰고 가는 가속도 역할을 한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동남아산 저가의 포장 원소재 수입이 시작되어 최근에 와서 국내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자 포장재 대형 소비자 대기업들이 품질보다는 가격을 위주로 오히려 포장재 가격 인하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실제 동남아 지역에서 포장 완제품까

지도 생산, 국내로 반입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내 포장재 가공 업체들은 설상가상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내 포장업체는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가 절감 방안 도출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으로 적자 생산을 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국제 원·부자재 가격 폭등이 최대의 장벽이 되고 있어 더 이상의 방안이 없는 절망적인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일부 포장재 가공업체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 포장재 소비자(user)의 구매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거래처 외에 타 가공 업체에 포장재 납품 제의를 할 경우 대형 거래처와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보자는 이기심으로 기존 거래 업체와의 정보교류 없이 이해할 수 없는 짝 건적을 제출하여 오히려 구매 담당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행위, 근거 없이 기존 거래 업체를 비방하거나 부도위기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은 결국은 대형 소비자의 구매전략에 휘말리고 만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포장업체의 약점을 적절히 이용, 포장재 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오히려 인하 압력의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포장가공 업체의 돌출행위는 국내 포장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원인제공이 되고 있으며, 제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의 전형

적인 악순환의 사례이며, 이런 영업 행태의 반성 없이는 국내 포장산업이 공멸로 가는 첩경이 될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자유경쟁 시장 체제하에서 단지 포장산업 입장에서 대형 포장재 사용업체에 수입을 하지 말라, 해외에서 생산하지 말라식의 요구를 할 자격도 의사도 없다.

그러나 국내산업 보호차원에서 수입량을 적절히 분배한다거나 포장재 가격 인상을 적기에 적정하게 수용하여, 대기업이 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형 포장재 사용업체들도 포장산업계와 같은 요인으로 전체적인 제조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포장비가 제품가격에 2~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볼때 포장 업체에 비해 그 충격이 훨씬 적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포장재의 품질 저하를 불러와 포장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결국은 국내 포장산업이 파멸로 갈 수 있다는 예측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포장재 가공업체 또한 무리한 출혈경쟁을 즉각 중단하여 품질위주의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제품은 포장이 있어야 비로소 상품이 완성될 수 있다는 불가분의 관계를 인식, 포장재 가공업체와 포장재 사용업체 공히 윈-윈 할 수 있는 사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